

대학생의 사회자본이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최미경¹, 강천국², 최세영^{3*}

¹드림교육복지연구소, ²백석문화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³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Diversity, Universality and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Mi Kyong Choi¹, Cheon Kook Kang², Se Yeong Choi^{3*}

¹Dream Education and Welfare Research Institute

²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Baekseok Culture University

³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Art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사회자본이 다문화수용성의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충남지역 소재 5개 대학교 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이 다양성 중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별로는 공적신뢰($\beta=.218, p<.001$), 참여($\beta=.132, p<.01$), 호혜적 규범($\beta=.119, p<.05$)이 문화개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공적신뢰($\beta=-.279, p<.001$), 호혜적 규범($\beta=-.118, p<.05$), 네트워크($\beta=-.105, p<.05$)가 국민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호혜적 규범($\beta=-.316, p<.001$), 네트워크($\beta=-.098, p<.05$)가 고정관념 및 차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이 보편성 중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beta=.171, p<.001$), 네트워크($\beta=.154, p<.01$), 공적신뢰($\beta=.134, p<.01$)가 이중적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참여($\beta=.182, p<.001$), 호혜적 규범($\beta=.178, p<.001$), 네트워크($\beta=.122, p<.05$)가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자본이 관계성 중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별로는 참여($\beta=.171, p<.01$), 호혜적규범($\beta=.132, p<.01$), 사적신뢰($\beta=.129, p<.05$)가 일방적 동화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네트워크($\beta=-.205, p<.001$), 호혜적 규범($\beta=-.192, p<.001$)이 거부회피정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참여($\beta=.214, p<.001$), 호혜적 규범($\beta=.155, p<.01$), 공적신뢰($\beta=.152, p<.01$)가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가지는 사회자본과 다문화수용성은 개인 및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soci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on diversity, universality, and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multicultural acceptance. A survey was conducted on 400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the Chungcheongnam-do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cultural openness, national identity,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among diversity is seen in public trust ($\beta=.218, p<.001$) and participation ($\beta=.132, p<.01$) based on independent variables. Reciprocal norms ($\beta=-.279, 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cultural openness and public trust ($\beta=-.279, p<.001$). Reciprocal norms ($\beta=-.118, p<.05$) and network ($\beta=-.105, p<.05$)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national identity. Also, reciprocal norms ($\beta=-.316, p<.001$) and network ($\beta=-.098, p<.05$)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Second, social capital has a dual evaluation of universality, and its impact on global citizenship is seen in participation ($\beta=.171, p<.001$) and network ($\beta=.154, p<.01$). Public trust ($\beta=.134, p<.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dual evaluation, participation ($\beta=.182, p<.001$), and reciprocal norms ($\beta=.178, p<.001$). Network ($\beta=.122, p<.05$)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global citizenship. Thir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one-sided assimilation expectations, rejection-avoidance emotions, and mutual exchange among relationships was divided into participation ($\beta=.171, p<.01$) and reciprocal norms ($\beta=.132, p<.01$) by independent variables. Private trust ($\beta=.129, p<.05$)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one-sided assimilation expectations and network ($\beta=-.205, p<.001$). Reciprocal norms ($\beta=-.192, 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jection avoidance emotions and participation ($\beta=.214, p<.001$). Reciprocal norms ($\beta=.155, p<.01$), and public trust ($\beta=.152, p<.01$)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mutual exchange.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countries with outstanding social capital and acceptan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results can serve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victory in national competitions and can help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on to reach a global level.

Keywords : Social Capital, Multicultural Acceptance, Diversity, Universality, Relationships

*Corresponding Author : Se Yeong Choi(Baekseok Arts Univ.)

email: csy1003@bau.ac.kr

Received September 15, 2023

Revised October 18,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의 학령인구 감소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은 약 216만 명으로 총 인구 대비 4.2%를 차지하며[1], 2040년에는 총 인구 대비 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2]. 이에 대비하여 주목할 점은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와는 달리 다문화가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으로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청소년 수는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약 16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하고 있다[3].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전체 청소년 수 대비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사회자본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급속한 위기 상황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Bourdieu[4], Coleman[5], 그리고 Putnam[6]이 있으며, 이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사회자본은 타인과의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망을 통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상호 혜택을 추구하고 협력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안정성, 연대의식, 화합, 결속 등을 강화하고,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며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회구성원들 간에 상호 신뢰와 호혜를 통해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사회자본은 물질 자본, 인적 자본과 함께 중요한 자본의 한 형태로 인식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망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다. 이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가 개인 및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7].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와 '수용성'의 합성어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다문화'와 '다른 대상이 가진 어떤 측면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하는 '수용성'이 어우러진 개념이다[8].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인구가 들어왔다. 이로 인해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회 전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9]. 우리와 다른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다[10].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은 이주민들의 출신 배경, 외모, 비자 종류, 국적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의 등장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보편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민족적 배경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11].

다문화 수용성의 하부요인 중에서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를 포함한 여러 집단을 자신의 집단과 동등하게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문화나 가치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나 그 안에 있는 개인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포함한다[12]. 다양성은 문화개방성과 국민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다문화사회에서 타문화를 인정하며 조화롭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관계성은 다른 인종이나 소수 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와 관련 있다. 관계성에는 일반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종, 문화, 또는 소수집단과 주류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2,13]. 보편성은 경제적 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 지역, 인종, 종교적 차이를 초월하여 공통된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이중적 평가와 세계 시민 행동 의지로 구성되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12].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전반에서의 신뢰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자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개인이 다른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며, 학교에서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가르치고 지역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합되어 다문화 수용성이 증진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내 다문화 관련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정 자

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되어 왔으며, 또한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더욱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4-19].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하부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사회자본이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사회자본을 강화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이 다양성, 보편성 그리고 관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사회자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다.

셋째, 사회자본이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사회자본이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자본

사회자본이란 ‘사회’와 ‘자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내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Bourdieu[4]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된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Coleman[20]은 사회자본을 특정한 행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구조로 설명하였고, 사회자본을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개인 간의 상호 혜택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호혜적 규범을 통해 관계와 네트워크가 생성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되며, 사회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자원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21].

2.2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유입됨에 따라 선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한 타인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로 그들과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 인식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고자 하며 이들과 협력하거나 지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11,22],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23]. 또한 김미진[24]은 다문화 수용성을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면서 다문화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서적 요인과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행동적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2.2.1 다양성

다양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으면서, 내집단의 고유한 정체성과 다른 문화나 이주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문화나 해당 문화의 개인들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나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12].

하위구성요인인 문화개방성은 국적, 인종, 종교 및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사회구성원이나 지역 사회 이웃으로 이주민과의 공동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을 주로 측정한다. 국민정체성은 Brubaker[25]의 정의를 토대로 특정 기준을 통해 자신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소속감을 의미한다. 이는 집단정체성의 하나로 개인의 자기인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정관념은 특정 국가와 민족, 인종과 종교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된다.

2.2.2 관계성

관계성은 다른 인종이나 타문화 집단과 긍정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집단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들과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Berry, Poortinga, Segall, & Dasen[13]은 관계성

의 하위구성요인으로 일방적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요소를 갖는다. 관계성은 다른 인종이나 타문화 집단과의 관계 형성에서 하위 구성요인들을 강조하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조화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12].

2.2.3 보편성

보편성은 경제 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나 차별화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인종, 문화, 지역,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며, 도덕적으로 공유하는 상위의 규범을 바탕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가리킨다. 이중적 평가 요인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나라나 문화의 경제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를 등급화하거나 차별화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동양인과 서양인, 흑인과 백인 등을 이중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세계시민 행동 의지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빈곤, 기아, 인권 등 인류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행동적 의지를 의미한다[12].

민 정체성(4문항), 고정관념 및 차별(7문항)에 대한 요소로 구성되며, 총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 기대(4문항), 거부 회피정서(3문항), 상호교류 행동의지(4문항)에 대한 요소로 구성되며, 총 11개의 문항으로 하였다.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4문항)와 세계시민의식(5문항)에 대한 요소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연구 모형

본 연구모형은 대학생의 사회자본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P. Bourdieu[4], R. D. Putnam[6], 최미경[7], R. Brubaker[25])의 고찰을 통하여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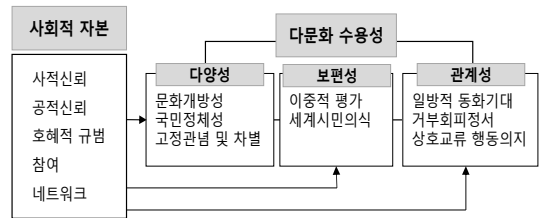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남지역 소재 5개 대학교 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6일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440부 중 불성실하게 기입한 자료 40부를 제외하고, 총 400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친 후(IRB 승인번호, 1041231-190626-HR-093-0)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측정도구

다문화 수용성 척도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는 안상수 등[11]에 의해 개발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개의 축과 8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다양성의 하위요소로 문화 개방성(4문항), 국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여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의 사회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181명(45.3%), 여성 219명(54.8%)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2학년 178명(44.5%), 3학년 127명(31.8%), 4학년 95명(23.8%)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이공계열 117명(29.3%), 사회계열 108명(27.0%), 인문계열 91명(22.8%), 예능계열 38명(9.5%), 사범계열 2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有 142명(35.5%), 無 258명(64.5%)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이해 교육 경험 유무는 有 204명(51.0%), 無 196명(49.0%)으로 나타났다. 해외 방문경험 유무는 有 304명(76.0%), 無 96명(24.0%)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수준은 상 57명(14.3%), 중 285명(71.3%), 하 58명(14.5%)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illance subjects

Variables		N(%)	
Gender	Male	181	(45.3)
	Female	219	(54.8)
Grade	2nd grade	178	(44.5)
	3rd grade	127	(31.8)
	4nd grade	95	(23.8)
Major	Social class	108	(27.0)
	Humanities	91	(22.8)
	Science and engineering	117	(29.3)
	Entertainment department	38	(9.5)
	Instructor Class	21	(5.3)
	Etc	25	(6.3)
Religion	Yes	142	(35.5)
	No	258	(64.5)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Experience	Yes	204	(51.0)
	No	196	(49.0)
Overseas visit experience	Yes	304	(76.0)
	No	96	(24.0)
Household economic level	Under	58	(14.5)
	Middle	285	(71.3)
	High	57	(14.3)
Total		400	100.0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4.2.1 사회자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사회자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KMO 값은 0.788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증결과는 3936.252 (df=276, p=.000)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2개의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고유값 1 이상인 요인 5개가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0.17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설명력은 '공적신뢰' 14.387%, '참여' 12.971%, '네트워크' 12.295%, '호혜적 규범' 11.251%, '사전신뢰' 9.267%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 결과는 Cronbach's α 계수 분석결과 0.702~0.880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신뢰성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2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KMO 값은 0.887로 요인분석에 가능한 표본으로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Bartlett 검증결과 8178.886(df=561, p=.000)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1개 문항이 제거, 고유값 1 이상인 요인이 8개가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0.148%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고정관념 및 차별'은 14.671%, '일방적 동화기대'는 8.980%, '세계시민의식'은 8.547%, '이중적 평가'는 8.233%, '국민정체성'은 8.176%,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7.652%, '거부회피정서'는 7.026%, '문화개방성'은 6.862%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한 결과 0.788~0.923으로 나타나 매우 신뢰성 있는 측정항목으로 분석되었다.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결과 사회자본은 하위요인별 '호혜적 규범'(M=4.04), '네트워크'(M=3.88), '사적신뢰'(M=3.70), '참여'(M=2.91), '공적신뢰'(M=2.86)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은 하위요인별 '세계시민의식'(M=4.33), '상호교류행동의지'(M=3.90), '문화개방성'(M=3.86), '이중적평가'(M=3.10), '일방적동화기대'(M=2.97), '국민정체성'(M=2.61), '거부회피정서'(M=2.30), '고정관념 및 차별'(M=2.0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ocial capital

(N=400)

Question	Ingredient				
	Public trust	Participation	Network	Reciprocal norm	Private trust
I trust local government.	.906	.018	.045	.010	.027
I trust the central government.	.859	.047	.049	.033	-.013
I believe in civic organizations.	.808	.017	-.007	.008	.187
I trust the media.	.789	.034	.008	.003	.129
I trust the school	.699	.049	.063	.083	.200
I give my opinion on political issues.	.079	.881	-.062	-.051	.028
I participate in various elections within the school (student president, club president, department representative, etc.).	.022	.802	.044	.034	-.048
When I see an act, I report it to the relevant authorities.	.083	.775	-.042	.077	-.036
I participate in school activities (department, student council, club, MT, school events, etc.).	-.004	.689	.151	.110	.088
I give my opinion about problems in school.	-.014	.663	.100	.135	-.022
I often keep in touch with my college and department classmates.	-.017	.032	.843	.140	.026
I am in frequent contact with my family.	.037	.052	.769	.067	.173
I often keep in touch with m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friends.	.049	-.027	.744	.050	.120
I often contact my relatives.	.047	-.046	.694	.185	-.054
I often keep in touch with my seniors and juniors.	.028	.227	.667	.078	.053
I have experience helping others when they need my help.	.008	-.001	.149	.792	.100
I have experience receiving help from others.	.004	-.090	.088	.721	.178
I expect help from others in my social life.	.018	.120	.059	.699	.084
I am careful not to harm others.	.010	.094	.119	.691	-.075
I follow norms and rules, such as taking turns, ordering traffic, and turning off cell phones in the library.	.093	.206	.085	.668	-.099
I trust my relatives	.165	-.054	.092	-.026	.787
I trust my family	.004	-.132	.162	.057	.702
I trust my neighbour.	.255	.110	-.115	-.019	.680
I trust my friends	.093	.087	.132	.145	.657
Eigenvalue	3.453	3.113	2.951	2.700	2.224
Variance Explanation (%)	14.387	12.971	12.295	11.251	9.267
Cumulative explanation (%)	14.387	27.358	39.653	50.903	60.171
Reliability	.880	.823	.806	.770	.702

KMO=.788, Bartlett's test $\chi^2=3936.252$ (df=276, p=.000)

Table 3. Valid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400)

Question	Ingredient							
	Cultural openness	Nation Identity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Double assessment	Global citizenship	One-sided expectation of fairy tales	Refusal and avoidance sentiment	Willingness to interact and act
If the neighbors often gather and enjoy their own cuisine, they will not have good feelings.	.040	.155	.829	.058	-.044	.066	.137	-.143
It is uncomfortable to see migrants gather separately to enjoy music, dance, and performances in their home country.	-.083	.102	.810	.030	-.095	.134	.151	-.102
I will criticize that it is not good for migrants to create online communities in their own languages.	-.134	.199	.777	-.016	-.052	.107	.054	-.023
Divorce in international marriages may be due to problems with foreign spouses.	.012	.150	.774	.108	-.247	.102	.174	-.111
It is difficult to trust and leave work to migr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028	.132	.745	.183	-.187	.084	.190	-.123
Korean-Chinese or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more lazy when working.	-.054	.149	.711	.127	-.176	.040	.194	-.119
If migrants live in Korea and gather separately to hold their own religious events, I will give them a look.	-.209	.108	.704	.083	-.108	.109	.171	.040
Even for children of foreign immigrants, perfecting Korean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parents' language.	.041	.035	.092	.158	.024	.876	.010	.003
Foreign immigrants who want to live in Korea should abandon their culture and follow Korean culture or customs.	.044	.066	.133	.275	-.035	.851	.060	.004
Korean migrant women should follow Korean customs and manners first.	-.069	.075	.138	.258	.014	.807	.079	.014
Rather than Korean students understand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students should try to understand Korean students.	-.018	-.021	.118	.150	.074	.778	-.031	.056
You can starve a meal to send food to people in hungry countries.	.035	-.036	-.191	-.005	.795	-.046	.087	.160
I want to help foreign workers who are treated unfairly.	.077	.025	-.221	-.077	.749	.051	.003	.268
I want to be a citizen of the world rather than a citizen of a country.	.199	-.089	-.117	.153	.685	.013	-.154	.093
I have voluntarily donated money for people in poor countries.	.066	-.013	-.071	-.043	.657	.052	-.039	.074
I am interested in encountering a new culture.	.130	-.026	-.097	.113	.579	.016	-.163	.333
Eigenvalue	2.333	2.780	4.988	2.799	2.906	3.053	2.389	2.602
Variance Explanation (%)	6.862	8.176	14.671	8.233	8.547	8.980	7.026	7.652
Cumulative explanation (%)	70.148	48.606	14.671	40.431	32.198	23.651	63.285	56.259
Reliability	.838	.840	.917	.843	.788	.890	.923	.796

KMO=.887, Bartlett's test $\chi^2=8178.886$ (df=561, p=.000)

Table 3. Continue, Valid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400)

Question	Ingredient							
	Cultural openness	Nation Identity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Double assessment	Global citizenship	One-sided expectation of fairy tales	Refusal and avoidance sentiment	Willingness to interact and act
If you make foreign friends, it is better to make friends from developed countries as much as possible.	.029	.013	.161	.828	-.009	.217	.062	-.076
Students from developed countries will do better than those from developing countries.	.030	.072	.107	.789	-.064	.234	.116	-.022
If you want to learn another country's language and culture, it is better to learn from developed countries.	-.086	.058	-.038	.774	.077	.134	.020	.042
The culture of developing countries is inferior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054	.032	.218	.722	.072	.277	.021	-.095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him as a true Korean even if he has acquired nationality unless he was born in Korea.	-.053	.873	.178	.078	-.109	.032	.096	-.055
If you have different skin color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you as a Korean even if you have acquired nationality or are good at Korean.	-.007	.839	.218	.056	-.080	.011	.174	-.114
It is reluctant to accept migrants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traditional food as Koreans.	-.119	.727	.294	.060	.055	.067	.026	-.096
Even if Korean immigrants are given the right to vote, they do not want to run as lawmakers or presidential candidates.	-.313	.639	.141	-.010	.004	.046	.149	-.119
I will gladly go into a local restaurant where foreign workers live together and eat.	.179	-.154	-.143	-.087	.175	.057	-.195	.725
When I meet Korean-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at school, I will try to be friends first.	.195	-.188	-.106	-.066	.304	.042	-.033	.724
If I have a chance, I will join a social gathering or club like migrants.	.155	-.041	-.061	.080	.211	-.074	-.048	.720
Regardless of the other person's race, nationality, or culture, I'm willing to date.	.182	-.042	-.127	-.097	.139	.069	-.120	.667
I think it's scarier when a black person sits next to me on a bus than white people.	-.039	.153	.349	.122	-.030	-.009	.836	-.117
It is reluctant to go to swimming pools or public baths with foreign immigr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079	.167	.347	.068	-.064	.045	.828	-.150
I want to avoid sitting next to foreign migr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on the subway and bus as much as possible.	-.088	.169	.348	.068	-.139	.092	.782	-.178
It is better for more foreigners to come in and live in the future.	.873	-.101	-.075	.022	.146	.015	-.061	.196
The more diverse races, religions, and cultures come, the better.	.764	-.093	-.047	.010	.130	.016	-.031	.301
It is not strange at all if many foreigners come into our neighborhood and live there.	.752	-.187	-.145	-.025	.177	-.023	-.062	.187
Eigenvalue	2.333	2.780	4.988	2.799	2.906	3.053	2.389	2.602
Variance Explanation (%)	6.862	8.176	14.671	8.233	8.547	8.980	7.026	7.652
Cumulative explanation (%)	70.148	48.606	14.671	40.431	32.198	23.651	63.285	56.259
Reliability	.838	.840	.917	.843	.788	.890	.923	.796

KMO=.887, Bartlett's test $\chi^2=8178.886$ (df=561, p=.000)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and correlation verification

(N=400)

Variable	Social capital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ublic trust	Participation	Network	Reciprocal norm	Private trust	Cultural openness	Nation Identity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Double assessment	Global citizenship	One-sided expectation of fairy tales	Refusal and avoidance sentiment	Willingness to interact and act
Private trust	1												
Public trust	.313***	1											
Reciprocal norm	.102*	.082	1										
Participation	.025	.088	.184***	1									
Network	.176***	.091	.273***	.136**	1								
Cultural openness	.110*	.246***	.150**	.167**	.024	1							
Nation Identity	-.115*	-.293***	-.159**	-.005	-.155**	-.343***	1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048	-.007	-.327***	.010	-.173**	-.249***	.458***	1					
Double assessment	.139**	.185***	.124*	.212***	.210***	-.019	.160**	.273***	1				
Global citizenship	.085	.112*	.252***	.238***	.205***	.365***	-.174***	-.362***	.013	1			
One-sided expectation of fairy tales	.177***	.136**	.198***	.211***	.144**	-.012	.135**	.270***	.496***	.026	1		
Refusal and avoidance sentiment	-.067	-.038	-.252***	-.079	-.262***	-.244***	.416***	.586***	.222***	-.253***	.149**	1	
Willingness to interact and act	.085	.190***	.220***	.262***	.130**	.519***	-.326***	-.327***	-.108*	.525***	.010	-.369***	1
M	3.70	2.86	4.04	2.91	3.88	3.86	2.61	2.09	3.10	4.33	2.97	2.30	3.90
SD	.584	.654	.466	.833	.662	1.099	1.106	.956	1.165	.853	1.247	1.213	1.001

*p<.05, **p<.01, ***p<.001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사적신뢰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 문화개방성, 이중적평가, 일방적 동화기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국민정체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공적 신뢰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 문화개방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의식, 일방적 동화기대, 상호교류 행동 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국민정체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호혜적 규범은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 문화개방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의식, 일방적 동화기대,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가,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 정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참여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 문화개방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의식, 일방적 동화기대,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네트워크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의식, 일방적 동화기대,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정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Table 5.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iversity and cultural openness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F	R ² (Adj.R ²)
	B	S.E	β				
(Constant)	1.266	.578		2.191	.029	8.400***	.096 (.085)
Private trust	.067	.096	.036	.695	.487		
Public trust	.367	.085	.218	4.310***	.000		
Reciprocal norm	.280	.119	.119	2.349*	.019		
Participation	.175	.065	.132	2.699**	.007		
Network	-.087	.084	-.052	-1.034	.302		

Dependent variable: cultural openness

*p<.05, **p<.01, ***p<.001

4.4 사회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4.4.1 사회자본이 다양성의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다양성의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400, p<.001). 독립변수별로는 공적신뢰(β =.218, p<.001), 참여(β =.132, p<.01), 호혜적규범(β =.119, p<.05)이 문화개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공적신뢰, 참여, 호혜적규범이 높을수록 문화개방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2 사회자본이 다양성의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다양성의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1.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0.354,

p<.001). 독립변수별로는 공적신뢰(β =-.279, p<.001), 호혜적규범(β =-.118, p<.05), 네트워크(β =-.105, p<.05)가 국민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공적신뢰, 호혜적규범,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국민정체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3 사회자본이 다양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다양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0.916, p<.001). 독립변수별로는 호혜적 규범(β =-.316, p<.001), 네트워크(β =-.098, p<.05)가 고정관념 및 차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호혜적규범,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6.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iversity and national identity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F	R ² (Adj.R ²)
	B	S.E	β				
(Constant)	5.548	.575		9.652	.000	10.354***	.116 (.105)
Private trust	.002	.096	.001	.020	.984		
Public trust	-.471	.085	-.279	-5.562***	.000		
Reciprocal norm	-.280	.119	-.118	-2.365*	.019		
Participation	.073	.064	.055	1.139	.256		
Network	-.175	.084	-.105	-2.093*	.037		

Dependent variable: national identity

*p<.05, ***p<.001

Table 7.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iversity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F	R ² (Adj. R ²)
	B	S.E	β				
(Constant)	4.947	.496		9.984	.000	10.916***	.122 (.111)
Private trust	-.012	.082	-.007	-.142	.887		
Public trust	.034	.073	.023	.467	.641		
Reciprocal norm	-.649	.102	-.316	-6.358***	.000		
Participation	.092	.056	.080	1.652	.099		
Network	-.142	.072	-.098	-1.973*	.049		

Dependent Variables: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p<.05, ***p<.001

4.4.4 사회자본이 보편성의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보편성의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370,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β =.171, p<.001), 네트워크(β =.154, p<.01), 공적신뢰(β =.134, p<.01)가 이중적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참여,

네트워크,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이중적평가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5 사회자본이 보편성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보편성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0.97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β =.182, p<.001), 호혜

Table 8.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dual evaluation of universality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F	R ² (Adj. R ²)
	B	S.E	β				
(Constant)	-.134	.609		-.221	.825	9.370***	.106 (.095)
Private trust	.125	.101	.063	1.235	.218		
Public trust	.238	.090	.134	2.654**	.008		
Reciprocal norm	.083	.126	.033	.663	.508		
Participation	.240	.068	.171	3.512***	.000		
Network	.271	.089	.154	3.063**	.002		

Dependent Variables : Double Evaluation

p<.01, *p<.001

Table 9.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universal global citizenship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F	R ² (Adj. R ²)
	B	S.E	β				
(Constant)	1.514	.442		3.426	.001	10.974***	.122 (.111)
Private trust	.030	.074	.021	.413	.679		
Public trust	.083	.065	.063	1.270	.205		
Reciprocal norm	.326	.091	.178	3.577***	.000		
Participation	.187	.050	.182	3.771***	.000		
Network	.158	.064	.122	2.453*	.015		

Dependent Variables: Global Citizenship

*p<.05, ***p<.001

Table 10.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relational unilateral assimilation expectations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F	R ² (Adj. R ²)
	B	S.E	β				
(Constant)	-.986	.654		-1.508	.132	8.926***	.102 (.090)
Private trust	.275	.109	.129	2.531*	.012		
Public trust	.123	.096	.065	1.277	.202		
Reciprocal norm	.354	.135	.132	2.630**	.009		
Participation	.255	.073	.171	3.486**	.001		
Network	.105	.095	.056	1.105	.270		

Dependent variable: unilateral assimilation expectation

*p<.05, **p<.01, ***p<.001

적규범($\beta=.178$, $p<.001$), 네트워크($\beta=.122$, $p<.05$)가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참여,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6 사회자본이 관계성의 일방적 동화기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관계성의 일방적 동화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8.926$,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beta=.171$, $p<.01$), 호혜적 규범($\beta=.132$, $p<.01$), 사적신뢰($\beta=.129$, $p<.05$)가 일방적 동화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참여, 호혜적 규범,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일방적 동화기대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7 사회자본이 관계성의 거부회피정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관계성의 거부회피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9.151$, $p<.001$). 독립변수별로는 네트워크($\beta=-.205$, $p<.001$), 호혜적규범($\beta=-.192$, $p<.001$)이 거부회피정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이 높을수록 거부회피정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8 사회자본이 관계성의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관계성의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5%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11.298$,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beta=.214$, $p<.001$),

Table 11.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relationship rejection avoidance sentim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F	R ² (Adj. R ²)
	B	S.E	β				
(Constant)	5.923	.635		9.327	.000	9.151***	.104 (.093)
Private trust	-.022	.106	-.011	-.209	.835		
Public trust	.002	.094	.001	.016	.987		
Reciprocal norm	-.500	.131	-.192	-3.823***	.000		
Participation	-.022	.071	-.015	-.309	.757		
Network	-.377	.092	-.205	-4.076***	.000		

Dependent variable: Refusal avoidance sentiment

***p<.001

Table 12.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relationship interchange behavioral will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F	R ² (Adj. R ²)
	B	S.E	β				
(Constant)	.827	.518		1.598	.111		
Private trust	.015	.086	.009	.173	.862	11.298***	.125 (.114)
Public trust	.233	.076	.152	3.048**	.002		
Reciprocal norm	.334	.107	.155	3.126**	.002		
Participation	.257	.058	.214	4.431***	.000		
Network	.065	.075	.043	.868	.386		

Dependent variable: will to interact with each other

p<.01, *p<.001

호혜적규범($\beta=.155$, $p<.01$), 공적신뢰($\beta=.152$, $p<.01$)가 상호교류행동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별 참여, 호혜적 규범,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사회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충남지역 소재 5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에서는 Bartlett 검증결과 3936.252($df=276$, $p=.000$)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공적신뢰' .880점, '참여' .823점, '네트워크' .806점, '호혜적 규범' .770점, '사적신뢰' .702점으로 나타나 '신뢰도' 요인이 매우 신뢰성 있는 측정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에서는 Bartlett 검증결과 8178.886($df=561$, $p=.000$)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고정관념 및 차별'은 .917점, '국민정체성'은 .840점, '문화개방성'은 .828점, '거부회피정서'는 .923점, '일방적 동화기대'는 .890점,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796점, '이중적 평가'는 .843점, '세계시민의식'은 .788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둘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사회자본은 하위요인별 '호혜적 규범'(M=4.04), '네트워크'(M=3.88), '사적신

뢰'(M=3.70), '참여'(M=2.91), '공적신뢰'(M=2.86)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은 하위요인별 '세계시민의식'(M=4.33), '상호교류 행동의지'(M=3.90), '문화개방성'(M=3.86), '이중적 평가'(M=3.10), '일방적 동화기대'(M=2.97), '국민정체성'(M=2.61), '거부회피정서'(M=2.30), '고정관념 및 차별'(M=2.09)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양성의 문화개방성은 사회자본의 공적신뢰, 참여, 호혜적 규범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국민정체성은 공적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은 공적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보편성의 이중적 평가는 참여, 네트워크,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은 참여,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관계성의 일방적 동화기대는 참여, 호혜적규범,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거부회피정서는 네트워크, 호혜적규범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고,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참여, 호혜적 규범,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를 신뢰할수록 외국인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다문화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김혜선[18]과 이형하[1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한국사회 신뢰수준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가장 낮았다는 김희삼[26]의 연구가 시사하듯,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저신뢰 현상은 고위공무원, 특권층의 부정부패가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집단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변화와 함께 학교에서 리더러시교육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호혜적 규범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 김혜선[18], 허윤철 외[27], 정현경[28] 과도 일치한다. 상호 균형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에 따른 규범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강한 결속력을 지닌 참여나, 배타적인 네트워크 관계 내에서 형성되는 호혜적 규범은, 타 집단에 대해 차별화하는 특수화된 호혜관계로 공동체 전체의 사회자본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속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있다 하여도, 새로 유입된 새로운 인종이나 문화집단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호혜성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재철[2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혜성의 가치가 어느 공동체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에 대해 일방적인 친절이나 호혜를 베푸는 활동은 지양되어야 하고,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것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호혜적규범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다문화 이해와 관련된 교과목을 전학과의 교양 및 관련 전공의 필수 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 그룹 활동 등의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결국 다문화사회에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참여는 자원봉사, 지역사회단체나 기관에서의 활동, 기부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류로 표현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Cote & Erickson[3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적극적인 참여는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Zakaria[31]에 따르면 특정 단체의 참여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결속형 참여보다는 개방적이고 외부지향적인 교류형 성격의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utnam[32]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참여 형태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학생들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가지는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은 개인 및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국

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대상을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으로 유형화하고 그들의 경험과 희망사항을 분석하여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하여 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느끼는 수용성 정도의 체감수준을 파악하여 조사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것은 다문화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간극 및 상호인식 차이를 이해하여 향후 사회통합을 이루는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0.
- [2] Statistical Office. 2022.
- [3] Ministry of Education, 2021.
- [4]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p.241-258, 1986.
- [5] J. S. Coleman,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1, No.6, pp.1309-1335, 1986.
DOI: <https://doi.org/10.1086/228423>
- [6] R. D. Putnam, R. Lenonardi, & R.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7] M. K. Choi, K. S. Kong,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11, No.1, pp.131-160, 2022.
- [8] S. E. Chae, Effects of Media Use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itizenship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2, No.3, pp.433-461, 2014.
DOI: <https://doi.org/10.25152/ser.2014.62.3.433>
- [9] E. J. Ja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Capital, Korean Language Competence, Career Awareness Adapt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of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10, No.5, pp.277-297, 2021.
- [10]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 2022.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8878>
- [11] S. S. Ahn, M. S. Min, Y. S. Kim, K. M. Kim, M. J. Lee,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 [12] S. S. Ahn, Y.S. Kim, K.H. Ma, H. Y. Moon, M.J.Lee, The 2015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 [13] J. W. Berry, Y. H. Poortinga, M. H. Segall, & P. R. Dasen,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Second, revised edition), 2002.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974274>
- [14] S. M. Yang, Parenting attitude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rural areas and school life adaptation and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7, pp. 455-466.
- [15] Y. J. Le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Graduate School, Kong Ju National University, 2007.
- [16] K. S. Jun,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6, No.1, pp.167-185, 2008.
DOI: <https://doi.org/10.35151/kyci.2008.16.1.011>
- [17] K. Jin, J. J. Ji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Vol.2015, No.2, pp.995-1014, 2015.
- [18] H. S. Kim,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 [19] H.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eople's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19, No.11, pp.193-202, 2014.
- [20]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pp.95-120, 1988.
- [21] H. K. Jung,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Related Factors of Rural Wome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9.
- [22] J. Y. Lee,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23] I. J. Yoon,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23, No.1, pp.143-192, 2011.
- [24] M. J.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0.
- [25] R.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26] H. S. Kim, The Role of Education in Social Capital and Policy Direction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7.
- [27] Y. C. Heo, Y. H. Im, Y. Y. Cho, Impact of Local and National Social Capital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Koreans, *Journal of DIASPORA Studies*, Vol.11, No.2, pp.51-88, 2017.
- [28] H. K. Jung,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Related Factors of Rural Wome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9.
- [29] J. C. Lee, Analysis of Koran's Attitudes and Perceptions on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Vol.20, No.2, pp.275-304, 2017.
DOI: <https://doi.org/10.15617/psc.2017.6.20.2.275>
- [30] R. R. Cote, & B. H. Erickson, Untangling the Roots of Tolerance: How Forms of Social Capital Shape Attitudes toward Ethnic Minorities and Immigran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52, No.12, pp.1664-1689, 2009.
DOI: <https://doi.org/10.1177/0002764209331532>
- [31] F. Zakaria, Bigger Than the Family, Smaller Than the State: Are Voluntary Groups What Make Countries Work?, *The York Times' Book Review*, Vol.7, p.1, 1995.
- [32]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New York, 2000.

최 미 경(Mi-Kyong Choi)

[정회원]



- 2014년 8월 : 한경국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20년 2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한경국립대학교 외래강사
- 2021년 12월 ~ 현재 : 드림교육복지연구소 대표

<관심분야>

사회문제,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정책

강 천 국(Cheon-Kook Ka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과 (보건학석사)
- 2006년 2월 :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 2009년 6월 ~ 2019년 2월 :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연구행정 지원팀장
- 2019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관심분야>

병원경영분석, 병원인적자원관리, 보건행정

최 세 영(Se-Yeong Choi)

[정회원]



- 2011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8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사회조사 및 문제, 노인복지 정책분야